

‘한국가사와 사상연구’ 등 펴낸 불교가사 국문학장으로 개척

김주곤 교수

# “歌辭문학 사상배경은 불교”

불교가사(佛敎歌辭)는 4·4조로 리듬이 유연하고 내용이 쉬운데다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그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바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불교가사를 국문학의 한 장르로 개척하고 지속적 연구를 통해 이를 알리려는 사람이 있다. 최근 <한국가사 연구>와 <한국가사와 사상연구> (이상 국학자료원 刊)를 연속해서 펴낸 김주곤교수(65, 경산대 국문학과)가 그 주인공.



◇김주곤박사가 낸 책.

4대째 독실한 불교집안에서 자란 탓에 평생시 불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불교가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시가(古詩歌)연구를 하던 중 불교가사를 제대로 이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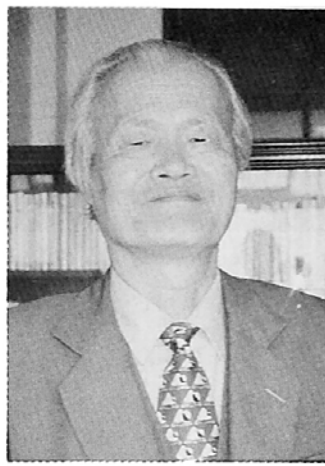
지 않고는 학문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가사는 고려말에 발생한 이래 조선조에 들어와서 크게 융성한 시조와 함께 우리 고시가의 양대 축을 이루어왔다. 특히 정토·윤희·미륵 등 불교사상이 담긴 불교가사는 당시의 사상과 사회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돼 왔다.

김교수가 지난 94년 펴낸 <한국불교가사연구> (집문당 刊)는 불교가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연구성과가 없었던 당시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불교가사의 형성배경에서부터 내용·서산·절허스님의 작품세계를 조망하고, 서원·왕생·참

선류 등 내용상 분류는 물론 문학적 위상을 재평가해냈다.

이번에 펴낸 <한국가사와 사상연구>에서는 불교가사에 나타난 정토·미륵·선·충효사상을 밝힘으로써 깊이를 한층 더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가사의 최고봉이랄 수 있는 송강가사에도 불교사상이 녹아 있음을 입증해냈다. 또 <한국가사 연구>에서 송강가사가 유교적 도교적이라는 기준 면서 환경에 따라 무아의 불성에 들든 혼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동별곡’ ‘사미인곡’ 등에 제행무상·윤희·선정(禪定)사상이 스며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송강가사’에 불교사상이 깃들었다는 사실은 불교사뿐만 아니라 학문적·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불교사상을 원용하지 않고는 인간과 자연을 표현하기 힘들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서구에서 선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물질문명의 병폐를 인간심성회복으로 해결하자는 자각때문이라고 지적한 김주곤교수는 “불교가사에는 가치관 혼돈시대의 오늘을 바로잡고 삶의 궁극을 제시해주는 가르침이 들어있는데 단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옛것으로만 치부합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불교가사의 의미를 되새겨 주면 모두들 감동하지요”라며 우리 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계속 펴내고 싶다고 말한다.

한영우 기자

## 불심시심 <124>

시는 구름과 물의 의미

禪房花木晚來幽 선방의 꽃과 나무 늦은 시각 더 그윽해져 (선방화목만대유)  
安得歸翁共此樓 어찌면 시인과 이 누대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 (안득사옹공차루)  
詩至每言雲水意 시 지극한은 향시 구름과 물의 뜻을 말함이나 (시지매언운수의)  
月明其奈別離愁 달 밝아지면 이별 수심을 그 어찌해야 하리까 (월명기내별리수)  
驚聲曉岸清如滑 피꼬리 소리 언덕 들려 맑기 미끄러질 듯하고 (영성요안정여활)  
山色當窗翠欲流 산빛은 창에 다달아 물 흐르듯 푸르다 (산색당창취욕류)  
寂寂相逢眞好事 자주자주 만남이 참으로 좋은 일이나 (寂寂相逢眞好事)  
不須留待菊花秋 굳이 국화 피는 가을을 꼭 기다릴 필요야. (불수유대국화추)

인악화상의 ‘병외의 운여 차 운한다(次平運韻)’ 시로 불날의 경치를 담담하게 서술한 것이다. 꽃과 나무의 향기도 해 지내어 더 짙게 증기는 것이 산중의 정경이다. 더구나 조은한 선방과 어울려 있다면 그 그윽함이 말할 수 없는 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때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역시 시를 사랑하는 친구이면 좋겠다.

그래서 짓는 시 또한 자연의 소재 그대로여야 한다. 구름이나 흐르는 물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연의 유유함이다. 운수란 짐착이 없기에 승려의 행색으로 대우되기도 하지만, 시의 저작 자체도 이 구름, 물의 흐름보다 더한 이야기거리가 어디 있었는가. 달의 밝음

이 시로의 만남을 도울 듯도 하지만, 밝은 뒤의 어두움이냐 만남 뒤의 헤어짐이 전제되어 오히려 수심으로 내비칠 소지가 강하다. 그러기에 달빛의 아별이 만남보다 더 진실한 마음의 고백일 수가 있었다.

새의 울음은 봄을 알리는 잔량자이다. 피꼬리의 울음은 새 울음의 극치로 칭송된다. 그 맑기의 매끄러움 때문이다. 봄의 색깔은 창을 열고 들어와 사람들 들을 싱그러게 한다. 그 푸르름이 들을 기뻐하며 흘러간다. 자연은 존재일 뿐 음침이 아니다. 그러나 이 시는 이것을 동작으로 생동화한다. 소리는 미끄러지고 빛은 흐른다. 이것이 바로 진리요. 선의 일상사가 아닌가. 이증찬 (동국대 교수)

### “불교작법무는 총 4종” 법현스님 논문 발표

법현스님(동국대 국악과 교수)은 <선학회>지 98년 도 불호(7호)에 발표한 논문 ‘불교무용연구-춤의 분류와 반주음악을 중심으로’에서 ‘불교의식의 상단 중단 하단 의식 모두에서 작법무가 사용되었으며 불교무용에서 사용되는 작법무는 나비무, 바라무, 법고무, 타주무 등 4종’이라고 밝혔다.

나비무에는 오공양작법 도량계작법 등 14종, 바라무에는 천수바라 요잡바라 등 7종, 타주무 1종, 법고무 1종이 쓰인다. 바라무 7종과 법고무는 현재 행해지고 있지만 나비무 16가지 작법중 만다라작법은 舞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타주무는 범패와 기악반주 없이 무가 이루어지고, 나비무와 바라무에는 호소리가 사용되고 법고무에는 범패가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비무와 바라무, 법고무에 사용되는 기악반주는 모두 호적과 사물 삼현육각이다.

법현스님은 “민속무용 ‘승무’를 불교무용인 것으로 이해되어온 기존까지의 용어는 재고되어야 하며 민속무 ‘승무’는 새로운 용어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명 무 명 인 전 에 나오는 자 은 스 님 의 재 생 .



◇ 한국의 명무명인전 10·11일 호암아트홀

### 민족예술의 우수성 체험 기회

동국예술기획(대표 박동국)은 11·12일 양일간 오후 7시 호암아트홀에서 제16회 한국의 명무명인전을 개최한다.

11일에는 춘영전(김희숙) 도살풀이춤(양길순) 가야금병창(강정숙) 승무(임이조) 태평무(강윤나) 경기민요(이춘희) 살풀이춤(김정녀) 대금산조(이성강), 12일에는 태평무(고선아) 살풀이춤(정명자) 승무(김진홍) 으뜸춤(허순선) 가야금산조(양승희) 한량무(이척) 살풀이춤(엄옥자) 재생(자은스님 오미자) 등이 공연된다. 인간문화재들과 젊은 예술인들이 다수 출연하는 이번 명무명인전은 민족예술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맘껏 느낄 수 있는 기회이다.

특히 ‘재생’은 전생의 업보로 문둥병에 걸려 고통속에서 삶을 살다가 불교에 귀의하여 부처님가피로 병을 고치고 스님이 되어 득도하는 한 인간의 삶을 조명한 춤이다. (02)585-7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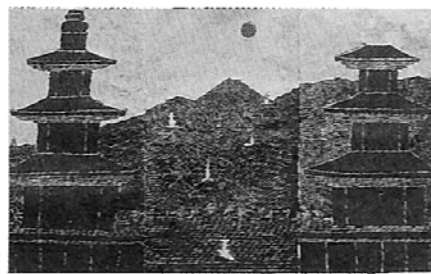


◇이태영작 ‘타주’

### 대한민국 사진전 ‘대상’ 최재영씨 ‘다정한 속삭임’ 불교소재작품 다수 입상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이봉하)가 주최하는 제17회 대한민국사진전람회(이하 사진전)에서 최재영씨(53, '98 사진영상의 해 조지위원회 사무총

주제의 사진 전시



◇ 제4회 관화미술제에 나온 김주곤작 ‘남산’.

서울관화미술제 15일까지 예술의전당

### ‘경주남산’ 등 1300여 작품 감상

제4회 서울관화미술제가 7일부터 15일까지 서초동 예술의전당 전관에서 펼쳐진다. 현대관화공방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3개 화랑과 국내의 공방 9개, 관련단체 5개사 등이 참가하는 이번 관화미술제에는 김상구 강승희 김기향 황남재 김승연 도운의 임호 백순실 씨 등 국내작가 3백여명이 참여해 ‘경주 남산’ 등 1천3백여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김유정 서유정 유권열 이은경 정길재씨 등이 ‘21세기 관화의 예보’라는 제목의 대규모 공동설치작품을 발표한다. 매일 오후2~5시 어린이 관화교실, 관화백일장과 관화경매제(13일 오후4시) 등 관화의 대중화와 관화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이번 관화미술제에서는 IMF시대를 맞은 국민미술제라는 취지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관화작품을 살 수 있다. (02)518-6323

장)의 ‘다정한 속삭임’이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서일성씨의 ‘힘’, 특선작으로는 김형덕씨의 ‘잠선’ 이태영씨의 ‘타주’ 함재호씨의 ‘환희’ 등 10작품이, 입선작으로는 서춘식씨의 ‘바라춤’ 이정환씨의 ‘열반의 길’ 등 1백42점이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동승동 문예진흥원 미술관에서 전시된 후 대전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순회 전시를 갖는다.

### 안성 봉업사지서 목탑지 발견

10세기 조성...소조불상편 등 수습

고려 태조 왕건의 진영이 모셔졌던 안성 봉업사지(奉業寺址·일명 죽산리사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10세기 전반의 목탑지로 추정되는 건물지를 비롯 고려시대의 건물지 21개소, 금박을 입힌 소조불상편, 명문기와 등이 다량 수습됐다.

28일 봉업사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가진 경기도박물관(관장 장경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4일부터 3월30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 실시된 이번 발굴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목탑지로 추정되는 건물지의 발견. 한편의 길이가 13m인 정방형의 이 건물지는 이증기단 위에 정·측면 각각 4칸(혹은 5칸) 규모의 건물이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내부에서 나

발견된 목탑의 무늬는 기와가 출토돼 10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고려시대의 것으로 명문기와는 70여 종류로 분류되는데 ‘흥국8(興國 八·983년)’·‘신유년유년작(辛酉年遺年作·961년)’ 등은 경기도의 편년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나팔과 의슬편이 대부분인 소조불상편은 의슬에는 채색흔적과 금박편이 남아 있어 고려시대 소조불상의 제작기법을 살피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한편 경기도박물관은 5월31일까지 봉업사지 및 회암사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테마전시회 ‘경기도 지정문화재 순례 1’을 개최하고 있다.

### 불기 2542년 봉축행사용품 보급

# 연꽃 향기 가득히

btn이 부처님 오신날을 보다 장엄하게 꾸며 드립니다

btn이 연꽃향기 가득한 마음으로 4·8 봉축행사 용품을 만들었습니다. 보다 친근한 디자인, 격조 높은 고급품질로 btn의 이름값을 특별히 해 내겠습니다.

- btn 임직원 합장 -



불기 2542년 Buddha's Birthday

불기 2542년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A형) : 6M 40,000원, 8M 50,000원, 10M 60,000원

불기 2542년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B형) : 6M 40,000원, 8M 50,000원, 10M 60,000원

플래너 거치대 25,000원  
플래너 중 1세트 : 50,000원 (부착용 우산식 세팅을 넣어드립니다)  
번 : 50,000원 (거치대 포함) 세팅을 넣어드립니다.

만물기(4장, 2M) : 5,000원 재질 : 종이

타일링 : A형 1,000원, B형 1,000원, C형 1,000원, D형 1,000원, 등교리표(100장) 2,000원

노트 : 2,000원  
모자 (상인용, 아동용) : 5,000원  
선풍기 : 3,500원  
노트 : 1,000원  
즈개 (대, 중, 소) : 40,000원

티셔츠 (대, 중, 소) : 9,000원  
폴리티셔츠 (대, 중, 소) : 15,000원  
라운드 칼라 안에 상인용, 아동용 앞자수, 상인용, 아동용 (고급형)

어깨띠 : 3,000원 (100개 이상주문시 사할만큼 넣어드립니다.)

바탕고 어린이용  
버튼 : 400원 (A형, B형, C형, D형 날개판에)  
버튼형 열쇠고리 : 1,000원 (A형, B형, C형, D형 날개판에, 뒷면 거울 부착)

펜시 스티커 : 100원 (A형, B형, C형, D형, E형 날개판에)

지평의 저리로 마도를 넘어요!  
저관스티커 : 2,000원  
매주식 방수 고급스티커

등신 : 30,000원  
4색완성 100개 들어

-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ATV 채널32 불교TV에서 방영되는 광고와 각 사설로 발송되는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문상담전화 (02)3270-3366 (신용카드 구매가능)
- 4월10일까지 선주문시 5%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농협중앙회 069-01-233103 예금주: 불교텔레비전(주)

우 121-73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418  
문화사입단 : TEL:02)3270-3366(4)  
FAX:02)3270-3498

btn 불교텔레비전 32